

2007. 1. 18

# 아시아 여성노동의 현주소

박진영

전 아시아여성위원회(CAW)  
간사

## 1. 들어가며

지난 2006년은 아시아여성위원회(CAW: Committee for Asian Women)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아시아여성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의 여성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활동하는 국제 NGO이다. 태국 방콕에 자리하고 있는 CAW는 아시아 14개국 39개 여성 노동운동 조직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1981년 설립 이후로 여성 노동 현장의 변화에 따라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또 활동의 초점을 달리하면서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다.

작년 11월 24-26일 CAW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egional Consultative Conference on Uniting Women Workers Against Globalization”이라는 국제회의를 열었다.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CAW의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노동 시장의 거시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었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되는 자유무역, 비공식화, 이주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거시적,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2. 아시아, 그리고 여성 노동자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홍콩,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된 아시아의 산업화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들은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에서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대거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90년대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아시아 국가 간 자본의 이동, 특히 동북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로의 공장 이전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노동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여성 노동자들과, 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주한 외국 자본에 의해 형성된 저임금 시장으로 진입하는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이 교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각국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이것이 여성들의 세력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실업, 비공식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면서 점점 주변화 되어 가고 있으며, 빈곤 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과 법은 규제철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은 이러한 경향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산업 구조, 노동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고, 그 결과는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90년대 말의 아시아 경제 위기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협상력을 저하시켰고, 2000년대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주변화와 비공식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 패턴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생겨나는 한편, 가내 노동, 하청, 노점상 등 전통적 형태의 비공식 경제 부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보호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양태는 아시아 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임시직, 파견직, 하청, 파트타임 등으로 대별되는 고용의 비정규직화, 정규 고용의 비공식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비공식 영역의 존재와 더불어 노동의 외부화, 하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남아시아 지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메콩강 지역에서는 의류, 섬유 산업을 기반으로 했던 산업 구조 전체가 섬유 쿼터제의 종결로 인해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80년대에 걸쳐 CAW가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일들은 각 나라 여성 노동 단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 운동과 노조 조직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다 이슈화시키는 것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여성 노동자들의 지도력 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어떻게 여성이 노동 운동 내에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여성들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자료들을 출간하였다. 그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들과 조직가들 사이의 국가를 넘어선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장 여성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CAW는 세계화가 산업 구조, 노동 패턴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비공식 노동자의 조직 경험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 조직, 산업 구조 조정과 세계화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 산업 구조 조정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 제작 등이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 CAW의 주요 활동은 법제도, 정책 개선과 조직

화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집중되고 있다. 캠페인 등을 통해 각 국 여성 노동 조직들과 노조의 법제도 개선과 현실 적용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와 조직 영역에서의 조직화 노력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 캠페인은 최저임금 문제가 일국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전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3. 나가며

지난 20년간 세계화, 민영화, 농업의 붕괴가 여성의 이주를 증가시킨 결과, 여성 이주노동자는 40배가 증가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이 흘러간 국가에서는 이들을 저임금의 유연노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이주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라는 공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주 자체가 범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착취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저임금에 시달리며,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 무역 협정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임금과 노동 조건의 하락의 문제, 법적, 제도적 탈규제화와 법 시행의 문제, 여성 노동력의 비공식화에 따른 조직화의 어려움과 노동조합의 무관심 등, 각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CAW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여성노동 조직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자유 무역이나 조직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류/교환/방문 프로그램 조직, 일본의 노동법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등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수행, 조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노동조합이나 지역 노조 등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에 관한 연구 수행, 여성 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최저임금 등 공통의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공동 행동 조직 등의 활동을 통하여 향후 3년간 연대를 활성화하고자 한다.